



자랑스런 로타리안 시리즈 ③

헌신적 봉사, 나눔을 실천하는 **장충식 전총재 (2003-04, 한성RC)**

1932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난 장충식 단국대학교 명예총장 겸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은 1~7대 단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대한적십자사 총재,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등을 지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엄혹했던 정치적 격변기에, 그 중심인 대학의 총장을 지낸 장충식 전총재가 로타리와 인연을 맺은 것도 40여 년 전. 그는 '나에게 떳떳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

그의 말처럼, 그는 대학의 총장, 이사장, 대한적십자 총재와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등 사회 지도층의 일원으로 살아오며 모은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다. 국제로타리클럽은 지난 2011년 장충식 전총재의 정신과 삶을 기리며 그에게 '초아의 봉사상'을 수여했다.

총재님께서 로타리안이 되신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벌써 43년 전 일입니다. 제가 40대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송인상 전 RI이사님을 비행기에서 뵈었습니다. 송인상 회장님께 로타리의 역할과 사명,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죠. 송 회장님께서 제게 로타리 활동을 같이 해보자고 권유해 주셨고, 주저 없이 로타리안이 됐고 한성로타리클럽을 창립하였습니다.

로타리안이 되신 이후, 로타리안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저는 이제껏 로타리안으로서 책무와 봉사를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치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나누고 뒷받침해야 한다는 사명을 로타리 선배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저는 평생

“나에게 로타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업가가 아닌 월급쟁이로 살아왔습니다. 그 월급에서 취미활동 등 나의 필요를 줄여 후원과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남은 재산은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 손자들은 지금도 세를 얻어 살고 있지만, 손자들도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로타리안으로서 가장 큰 영예인 '초아의 봉사상'을 수상하신바 있습니다. 총재님의 나눔과 봉사에 대한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로타리안의 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나눔과 봉사는 내 것을 다 가지고, 내 필요대로 다 사용한 다음 남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가지지 않고, 소비 또한 줄여 근검절약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게 아름답기 때문에 나누기 위해 아끼고 줄이는 것이지요. 로타리안으로서 나눔과 봉이란 정신적 가치만은 아닙니다. 정신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물질과 행동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지요.

로타리안은 로타리의 가치와 사명이라는 정신을 가지는 것은 물론, 자기가 속한 클럽에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의 수입,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해 부끄럽지 않게 내는 것이지요. 내 수익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다른 로타리안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를 줄 수 있게 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나눔도 봉사로 결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타리에 젊은 세대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로타리가 목표와 가치를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로타리의 가치와 목표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해

주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희생적 봉사를 해 왔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지요. 젊은 세대를 위한 장학사업이나 봉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로타리의 가치와 활동에 공감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난다면, 젊은 로타리안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타리는 내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변할 수 없는 친구입니다. 이해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이인 것이죠. 저는 로타리 운동을 하며 많은 동지를 얻었습니다. 역대 총재와 지금의 총재님도 로타리의 정신과 가치를 잘 지키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로타리안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회원이 곧 조직이고, 로타리안이 로타리의 표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

